

# 익산시, 청년 꿈 실현 '청년 시청' 착공

### 옛 하노바호텔 개조 4층 규모 취·창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8개 분야 14개 사업에 55억 투입

익산시가 '청년 시청' 착공식을 갖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시청은 중앙동 옛 하노바호텔을 개조해 4층 규모로 들어선다.

이곳은 기존 익산청년센터 '청숲'의 기능을 확대해 취·창업, 문화, 복지 관련 각종 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 시청은 코로나 불투명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오락 시설과 북카페와 스티디움, 취·창업 컨설팅 상담실, 창업보육실,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등이 마련된다.

시는 청년 시청에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창업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총 102개 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시는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청년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 시청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 복지까지 책임지는 최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익산시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꿈 실현을 위한 공간인 '청년 시청'을 조성했다. 정현을 시장이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올해는 8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55억100만원(도비 포함)을 투입하기로 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춘에서 다양한 역량 강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한 각종 취업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일하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급도 계속된다.

근로청년수당은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외에도 청년자산형성 통장, 청년취업드림카드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립기반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순창군, 토종 청국장용 종균 상품화 성공

### 고초균 출시...청국장 대량생산 가능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센터가 전통장류에서 분리한 토종 청국장용 종균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군은 이번 분말 형태의 종균 상품화로 인해 국내 관련 업체를 통한 위생적인 청국장 생산은 물론 국내 청국장 제조기술 향상과 시장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국장용 종균인 '고초균'을 이용해 효소,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건강제품 생산이 가능해 관련 업체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종균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 중에는 이와 같은 청국장용 종균을 개발한 기업이 없어 그동안 청국장용 종균을 구입할 경로가 마땅치 않아 '나토(natto)균'이나 '바실러스균'을 수입해 사용해왔다.

이번에 첫 출시된 순창 청국장용은 자연발효 전통장류에서 분리된 균주로서 전통 청국장의 맛과 풍미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뒀다.

군이 상품화한 균주는 점질물 생산과 단백질 분해 활성이 매우 뛰어나 감마PGA와 아미노태질소를 고생산하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항산화 활성을 하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생산하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인 바실러스세레우스를 억제하고 인체에 유해한 바이오텍닉아민을 분해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위생적인 청국장 생산이 가능하다.



상품화에 성공한 청국장용 종균 상품.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현재까지 국내에서 청국장용 종균인 고초균을 생산·판매하지 못했던 이유는 고초균이 열과 약품에 내성이 강한 내생포자를 형성함으로써 사멸이 어려워 다른 효모, 유산균 등을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제조할 경우 고초균에 의해 시설이 오염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 발효산업화센터에서는 청국장용 종균을 생산하는 전용 발효조를 분리 운영해 교차 오염문제를 해결했다.

노석범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센터장은 "순창 대표 청국장용 종균 상품 출시를 통해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보다 위생적인 청국장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며 "청국장이 한국의 대표 K-Food를 넘어 나토(natto)와 같은 글로벌 푸드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더 앞당겨질 것이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남원시, '웃칠·같이 교육 수강생' 모집

남원시가 '2022 남원시 웃칠·같이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전북도 무형문화재 웃칠장 박강용 선생(웃칠 고급반), 대한예술명인 이견무 선생(같이 초·중급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활동해 전문성 있는 수업이 이뤄진다.

올해 교육은 2개 분야(웃칠, 같이분야) 5개 과정(웃칠 초급·중급·고급, 같이 초급·중급)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5월 9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가방울 웃칠공예교육센터 등에서 매주 1~2회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정원은 각 과정별 5~12명으로, 초급반은 관심있는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중급반 이상은 이전단계 수료자 또는 동등자격 보유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모든 강좌는 무료 수강이며 교육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시청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 순창군수 출마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이 6월 순창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권 전 원장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멸위기에 처한 순창을 농식품 수도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 전 원장은 우리나라 발효식품을 세계에 알린 생명공학 전문가다. 순창군 인계면에서 태어나 구립 율북초를 거쳐 순창중, 전주고, 서울대, 카이스트를 나왔다. 부인 정경란씨도 서울대 국악과를 나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악학으로 인문학박사를 받은 국악전문가다. 그는 "30여년 동안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효식품을 연구한 노하우로 순창을 세계적인 발효식품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며 "순창을 생산과 소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고장의



로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전 원장은 ▲순창에서 머물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세계적인 농촌관광도시 조성 ▲장류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전통 발효음식 문화농촌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농축식품 개발 및 판로와 유통 격정없는 순창브랜드 육성 ▲장애인고용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행복하고 귀농 귀촌인이 몰려드는 문화복합도시 조성 등을 공약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정읍시, 쌍화차거리 공영주차장 조성...도심 주차난 해소한다

### 47면 규모...6월 착공 연내 준공

정읍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장 문제 해결과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5만9300대를 초과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4% 증가 추세를 보이며 주차 관련 민원도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 내 불법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 장명동 쌍화차거리 주변 자연 셀프세차장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쌍화차거리는 정읍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쌍화차집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 등의 상점이 즐비해 있지만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상권침체와 인근 불법 주차장 차량으로 인해 주차 문제를 앓아오고 상점 업주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원도심 상점가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은 장명동 113-1번지 외 4필지 1246㎡ 면적에 총사업비 18억 원(국비 9억, 시비 9억)이 투입된다. 주차 면수 47면으로 조성되며, 가로등과 방범용 CCTV도 함께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실시계획을 완료했으며 오는 6월께 사업을



정읍시 쌍화차거리를 상징하는 찻잔 조형물. 정읍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정읍시 제공>

착공해 올해 안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과 도로의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질서있는 지역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쌍화차 거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